

## 사라진 KAL 007기 승객들과 승무원들에 대한 러시아 측 해명

바다에 추락한 다른 여객기들과는 다르게, KAL 007기가 "추락"한 경우에는 추락 추정 장소에 —수화물을 비롯해서— 시신이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장소에 있던 러시아 잠수부들, 격추에 전반적인 책임자인 소련 '군사 작전' 담당 장교인 블라디미르 카멘스키 장군, 전 NASA 추락 분석 전문가인 제임스 오버그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이 당혹스런 사실이 인지되었다. 카멘스키의 진술은 Rescue 007 웹사이트인 [www.rescue007.org](http://www.rescue007.org) 에 적혀 있다.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 책에서는 이 실종된 시신들에 대해 러시아 측이 어떻게 해명하려 했는가에 대해 자세히 쓰고 있다.

(다음 사항은 2000년 발행된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 80-86쪽에서 저자 버트 솔로스버그의 합의 하에 인용된 것이다.)

러시아 관계자들은 비행기 잔해가 있다고 주장한 현장에서 KAL 007기 승무원과 승객 269명이 몽땅 사라져 버린 상황을 설명하려고 진땀을 뺐다. 소련 측에서는 지금까지 네 가지 이론을 제시했다. 제일 처음 내놓은 설명은 KAL 007기에 소수의 군 병력만 탔고 민간인 승객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3년 9월 9일, 소련군 참모 총장과 국방부 제1차관을 지낸 니콜라이 오가르코프 원수가 KAL 007기에 민간인 승객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따라서 KAL 007기가 군 정찰기였다는 설은 설득력을 상실했다.

1983년 9월 9일 모스크바 라디오의 인용 보도에 따르면,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오가르코프 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남조선 대한항공 소속 비행기의 소련 영공 침입은 의도적이고 철저히 계획된 정찰 작전이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그 비행기는 미국과 일본에 위치한 특정 기지에서 지령을 받았다. 그 같은 목적을 위해 인명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민간인 여객기를 고른 것이다.”



Marshal Nikolai Ogarkov during his September 9, 1983 press conference on the shootdown of KAL 007. Ogarkov gave a good performance, but his remarks were a coverup from beginning to end.

그러나 수천이 넘는 희생자 가족의 고통을 볼때, KAL 007기가 민간인 여객기가 아니라는 설은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었다.

두 번째 설명은 비행기가 공중 폭발과 처참한 해상 추락으로 완전히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시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폭발 사고로 시체들이 완전히 가루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일은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우주 왕복선 챌린저 (Challenger) 호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 준다. KAL 007기보다 조금 높은 고도에서 챌린저 호는 정말 끔찍한 공중 폭발을 일으켰고, 뒤이어 바다 속으로 처참하게 추락했다. 그러나 시신을 모두 찾았고, 아주 심하게 손상되긴 했어도 모두 식별할 수 있었다. 또 KAL 007기의 피격에 이어 다른 보잉기 747기종이 공중 폭발후 바다에 추락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sup>74</sup> 이러한 사고들 이후의 상황은 KAL 007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추락 현장에서는 많은 시체가 즉시 수거되었고 모두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KAL 007이 피격당한 이후 꼬박 8일 만에 부분적인 시체 2구와 작은 신체 부위 11개가 일본의 한 해변에 쓸려왔다-모두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작은 신체 부위들은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소련 정부가 승객들의 구조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일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 말없이 그러나 무시무시하게 증언해 준다. 이 13개의 시체 조각들은 소련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이들의 시체 조각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승객들이 가루가 되었다는 이론을 반박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1993년 러시아 연방이 국제 연합에 넘겨 준 블랙박스 테이프들이다. 이 테이프들을 검토해 보면, KAL 007기는 미사일에 맞아 폭발했거나 해상 추락했다는 가정은 잘못되었다는 게 확실해진다.

소련 측이 주장하는 세 번째 설명은 가소로울 정도로 우습지만, 소련의 통신원인 안드레이 일레시(Andrey Illesh)가 그의 저서 《대한항공 보잉 747기의 의혹- The Mystery of Korean Boeing 747》에서 제시한 이론이다. 그는 커다란 게들이 시체들을 먹어버렸다고 주장한다. KAL 007기가 가라앉은 바다 밑바닥에 살고 있다는 게들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그렇다면 뼈는 어떻게 된 걸까? 게들이 뼈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게 이론은 끈질기게 되풀이 되어 왔다. 소련 요격기 조종사 겐나디 오시포비치의 입에서도 (별로 확신은 없어 보이지만) 나온다.

“...사할린에 있을 때 나는 그 '보잉기'를 발견하고 조사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 점은 사할린 연안 바다에 살면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 게들이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검은 장갑을 낀 손 하나만 발견했다고 들었다. 아마 내가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의 손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나는 민간인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

<sup>74</sup> 가장 비근한 예가 있다. 1987년 11월 28일 남아프리카 항공 (the South African Airways) 의 보잉 747기의 추락, 1985년 6월 23일 북대서양 상공에서 폭탄 테러로 인한 인디아 항공 (Air India) 보잉기 747폭발이 있다.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을 게가 먹어 버렸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틀림없이 뭔가 남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처음의 설명을 지지한다: 그건 정찰기였다. 어떤 경우든 그것이 우리 쪽으로 날아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sup>75</sup>

해양 생물학자인 윌리엄 뉴먼 (William Newman) 교수는 게 (아니면 다른 어떤 수중 생물이라도) 이론이 터무니 없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설령 갑각류나 상어 떼나 다른 무엇이 시체를 덮었다고 가정한다 해도, 뼈는 남았어야 한다.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뼈들이 바다나 대양 밑바닥에서 종종 발견된다. 더욱이, 갑각류는 뼈에는 손도 대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sup>76</sup>

네 번째 설명은 <이즈베스티야>의 두 통신원 술라네프, 일레시가 KAL 007기에 관한 연재 기사에 실은 잠수함 틴로 (Tinro) 2호의 미하일이 고레비치 (Mikhail Igorevich) 선장과의 인터뷰에 등장한다. 1991년 5월 31일자 신문에서 이고레비치 선장은 네 번째 설명을 제시했다—승객들이 옷만 남겨둔 채 비행기 바깥으로 빨려 나갔다는 것이다! 이고레비치의 말을 포함시킨 이유는 승객들이 구조되었다는 단순한 결론을 배제했을 때 얼마나 이상야릇하게 설명되는지 보여주려는 뜻에서이다. 이고레비치는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본의 아니게 승객들이 구조되었다는 주장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지퍼가 채워진 옷들 말이다. 코트, 정장 바지, 짧은 바지, 지퍼 달린 스웨터 등 종류는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지퍼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승객들은 기내 감압에 의해 비행기 바깥으로 빨려 나갔고 우리가 비행기 잔해를 발견한 현장과 전혀 다른 곳에 떨어졌다. 시신들은 훨씬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다. 조류도 거기에 한 몫 했을 것이다..’”<sup>77</sup>

이 '훨씬 넓은 지역'이 어디인지 찾지 못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눈앞에 있는 진실을 외면할 때 우리 상상력은 그렇게 말도 안되는 상황을 그려낸다! 그러나 이 설명들은 모두 한가지 명백한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명하려는 공통점이 깔려 있다—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단 한 구도 없다는 사실이다!

승객과 승무원들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과 1,020 가지의 회수된 표류 화물이나 비행기 잔해에서 수화물 (이나 다른 화물칸 물품) 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KAL 007기가 미사일에 맞고 나서 비행을 계속한 시간 내내 '상당 정도' 조종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sup>75</sup> <이즈베스티야>, 1991년 2월 8일자, 7면.

<sup>76</sup> 같은 자료

<sup>77</sup> <이즈베스티야>, 1991년 5월 28일자, 8면

- 조종사가 의식을 유지할 만큼 산소 공급이 충분했다.
- 모든 엔진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 전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선 통신과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 KAL 007기의 조종사는 강하하면서 속도를 서서히 줄였다.  
(그럴수 없었다면, KAL 007기는 강하하면서 점점 가속이 붙어 결국 2분 내지 2분 30초 만에 수면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KAL 007기의 비행은 최소 12분 동안 계속되었다).
- KAL 007은 미사일 폭파 이전의 고도를 거의 정확하게 회복했다 (KAL 007이 상승하기 전의 정확한 고도로 우연히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 KAL 007 는 미사일 폭파 이전의 속도를 회복했다.
- 천 기장은 KAL 007기의 기수 높낮이를 정확히 조절해 비행기의 고도를 맞추었다.
- KAL 007 는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 기장과 승무원들은 승객에게 바다에 비행 착수해 구조를 기다릴 준비를 시켰다.
- KAL 007 는 나선형 하강 또는 선회가 가능했다.